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격월 소식지



# 그루터기

이천십삼년칠팔월호 2013. 7-8

2013 청년주일 자포집

MYFK/Methodist Youth/Young Fellowship in Korea,  
Methodist Building 13th floor 64-8 Taepyeongro-1ga, Jung-gu, Seoul, Korea  
100-101 Tel:02-399-2086, 2170 Fax:02-399-2199  
Homepage:myfk.or.kr  
E-mail:[myfk@hanmail.net](mailto:myfk@hanmail.net)  
Cyworld:club.cyworld.com/MYF2006



감리교 청년주일은 매년 9월 넷째 주일입니다.

## 《생기 팍팍》

보라 방제가 연합하여 옮겨왔어 어찌 그리 신하고 아름다운고 (사권 133: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감리교청년회격월지

청년주일자료집

C o n t e n t s

2013. 7-8

### 3 청년주일자료집 목차

- #1. 청년주일 목회서신\_ 전용재 감독회장
- #2. 청년주일 설교\_ 고신일 감독
- #3. 청년주일 설교\_ 권혁원 목사

### 17 다녀왔습니다

- #1. 사랑나눔체험수련회\_ 홍제교회
- #2. 평화캠프\_ 하성웅 간사
- #3. KCRP\_ 김윤지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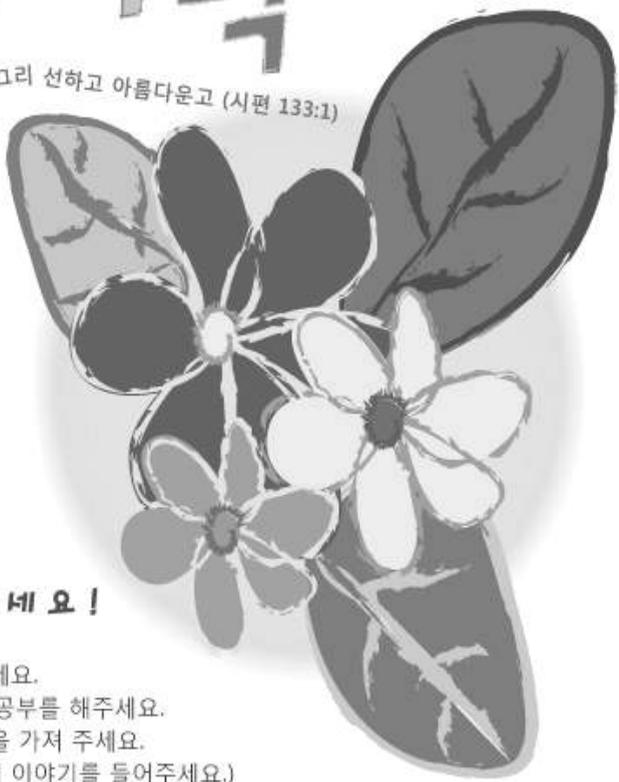
### 26 '생기팍팍' 청년들의 2013 여름

### 27 생일 축하드려요/그루터기에 생명을 주신 분들

제14차 감리교 청년주일은 9월 22일 입니다.

# 생기 팍팍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대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 주세요.
2. 청년주일 설교, 청년주일 성서공부를 해주세요.
3.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4.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5. 청년주일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www.facebook.com/youthsunday94](http://www.facebook.com/youthsunday94))
6. 청년지도력양상을 위해 청년들과 2014년 1월 캄보디아로 워크캠프를 떠납니다.  
워크캠프는 감리교청년들이 참여하는 해외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우물 및 화장실 만들기,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의 참의미를 깨닫고 체험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주일헌금의 일부를 청년지도력양성에 쓰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감리교 청년회: 우리은행 142-422823-13-001) 문의 : 청년회전국연합회 02-399-2086/2170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청년주일 목회서신

### 감독회장 전 용 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주일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03년 여름,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모여 원산에서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가지던 중,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100만 구령운동으로 불길이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10년 전 하디의 회개를 기념하며 “Hardie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와 청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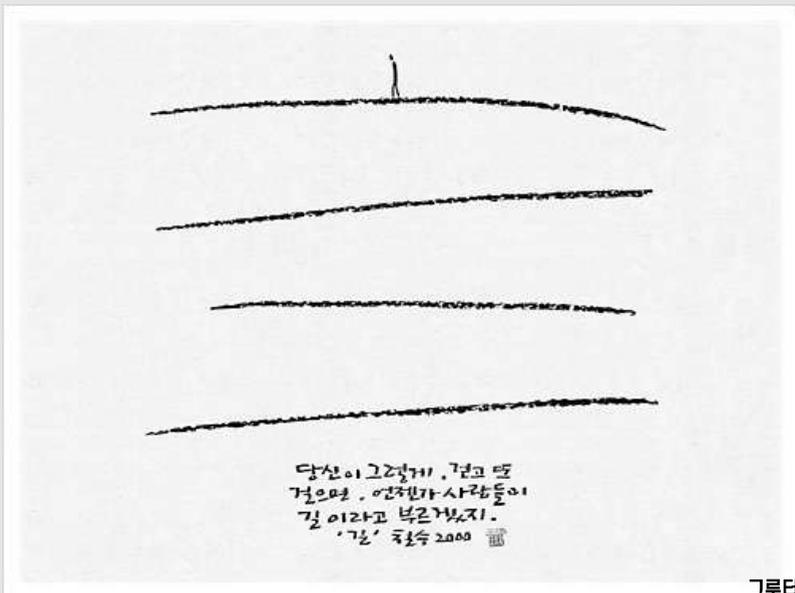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Hardie 1903 성령한국”을 개최한 이유도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오늘의 나를 찾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청년시대는 역사의식과 참여가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미가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미 6:8).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가는 말하기를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익을 더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시대야말로 말로 진실한 마음과 진지한 눈을 가진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존재를 새롭게 하며,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 청년들이 언제나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늘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신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환상을 성취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중부연회 감독 고 신 일

본문: 삼하 9장 1~13절

### - 기억과 삶

사람은 수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기억 중 최초의 기억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초의 기억, 학자들이 일명 '초기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잘 해서 칭찬 받았던 기억, 좋은 일을 해서 대견했거나 뿌듯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혼났던 일, 도망쳤던 일, 실수했던 일, 초기 기억은 대부분 이런 일에 대한 기억인 것이지요. 많은 기억들 중에 왜 하필 이렇게 혼나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 그래서 누구나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용들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을까요?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 2. 7. ~ 1937. 5. 28.)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이 초기 기억을 열등감과 관련시켰습니다. 초기기억 중에는 아쉽고 부끄럽고, 잊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잘 살펴보면 한 개인이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을 갖고 있고, 그 열등감이 개인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아들러의 주장도 듣고 보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들러라는 사람의 주장처럼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가 정해진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 - 다윗의 ‘기억’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과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 그리고 므비보셋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가문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소개되었고 시바를 통해서 사울 집안에 므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은 이미 므비보셋에 대해 짧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므비보셋은 5살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할아버지인 사울 왕과 아버지인 요나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리 중에 므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어린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고 그 날 이후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런 므비보셋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다윗과 마주한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삼하 9:6) 심지어는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까지 했습니다.

비록 혈통은 끊어졌지만 므비보셋은 한 때 왕이었던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게다가 므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절친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므비보셋이 무엇 때문에 다윗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므비보셋의 스펙 중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밉고 다윗에게 질투가 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던 사람 ... (삼상 18:11, 19:10) 다윗을 광야로 도망치게 했고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피신하게 했던 사람 ... 심지어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다윗 스스로 미친척까지 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 므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시골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던 므비보셋을 어느 날 다윗 왕이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므비보셋은 분명 다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던 아버지 요나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후손 곧 사울 왕의 손자라는 사실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의 뇌리에 가득 차 있던 생각은 바로 '원수 같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므비보셋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들. 수도 없이 넘겼던 죽음의 고비들과 죽을 만큼 힘들었던 도망자 생활. 므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라는 생각만 하면 다윗은 당장이라도 칼을 빼 들어 눈앞의 므비보셋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떠올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아들이 지금 다윗 앞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므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 곧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곧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왕이 되어 이미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을 다 가진 내 앞에 가진 것도 없고 다리까지 저는 한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 압도적 우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므비보셋에게 그 끔찍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원수를 갚겠습니까? 아니면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한 대접을 베풀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미 뜻을 확고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다. 원수를 기억하지 않았습다. 다윗이 기억하고 있던 것은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인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 그 남자 구글링(Googling) 해봤어?

캐나다 밴쿠버에 '앤드루 펠드마(Andrew Peldma)'라는 대학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순 여섯 살이던 2007년에 미국 시애틀에 사는 친구를 만나고 자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검문하던 직원은 펠드마가 교수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글(Google)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논문 한 편이 검색되었습니다. 바로 40년 전에 환각 물질로만 알려져 있던 LSD라는 약물이 심리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펠드마 교수가 직접 LSD를 복용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던 논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펠드마 교수는 금지약물 복용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10. 7. 24. A27면 참조.)

'용서'라는 것 즉 원수를 원수로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 그 출발점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용서했다고 하면서 예전 일을 잊지 않고 자꾸 들먹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잊어버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다 보니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상적인 일들조차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큰 오점이 되버리고 펠드마 교수의 경우처럼 연구를 목적으로 했던 기록조차도 전과나 범죄 기록처럼 활용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를 내면서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보다 청문회를 통과할 만큼 허물이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때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계속 떠올려서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 그래서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로 남아있는 사회.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잊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 - 죄인의 기억 vs 구원받은 자의 기억

세상에는 분명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성 별로고 이기적이고 욕심까지 많은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단 번에 쓸어버리시고 세상에 선하고 진실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 아래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에게만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도, 불의한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반쪽짜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은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대중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죄 값은 치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눅 6:32~33)"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호감을 갖는 것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것. 예수님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랑 잘 통해서 코드가 맞아서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는데 별다른 노력도 필요 없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서는 '야 재는 니랑 잘 맞는 것 같아 '쫓' 저 사람과는 친해지기 힘들겠는 걸..' 이렇게 구분 짓는 것 그 자체가 죄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죄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때리고, 흠치고, 죽이고, 죄인들이나 하는 이런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고 나서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아무리 억지를 부려봤자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관계 맺기 꺼끄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넓은 마음을 베풀려고 해도 꼭 옥먹을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랑은 잘 안 맞아서 거리감을 두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불평들은 많기만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상이 안 좋다, '말투가 맘에 안 든다.' 이와 같은 하찮은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겪었던 일처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명백하고 엄청난 상대방의 악한 행동 때문이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은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람을 판단하고 좋아할 만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을 마주했던 다윗은 사울과 관련된 과거를 참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참을 필요도, 고의적으로 무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원수 같던 사울의 행동을 모두 받아들이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먼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 5:10)” 우리가 다윗처럼 원수를 잊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히 8:12)

그러므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지 아니면 잊어 줄 것은 잊고 상대를 용납하는지의 문제는 단순하게 무엇을 잊고 기억하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의 삶을 사는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작은 실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데이터의 기록이 쉽고 풍부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이 땅의 젊은이들이 먼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 관계의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내 죄를 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기도

하나님! 우리 죄를 잊으시고 화목케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는 잊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은혜는 금방 잊혀지고 원수는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잊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용납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라지며 교회 안에서는 어긋난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라

권혁원 목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본문: 마 14장 22~33절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자신을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물위를 걷기를 바라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에 뜨자마자 이내 두려움에 휩싸여 우스꽝스럽게도 순식간에 물에 빠져 가리웠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피한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의심하였다"고 주님에게 꾸중까지 듣게 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겸손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베드로의 직업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였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어릴 적부터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타고 고시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바람과 물결로 인해 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도 새벽 칠혹 같은 어둠 중에 물은 아마도 깊이를 헤아릴 수 없겠다는 듯 얼마나 짙은 검정색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우기 전과 후에 혹시 조수석에 타보신적 있으세요? 운전을 배우기 전에는 잘 모르고 타는데 운전을 할 줄 알 때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엄청 무섭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바다에 대한 지식 이전에 이미 몸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걸어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팔라"라는 동물을 아세요? 임팔라는 아프리카 케냐 앙골라 주변에 사는 산양의 한 종류입니다. 동물원에 갔다가 이 임팔라라는 동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원 우리 앞에 쓰여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까 높게는 3미터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담장 높이가 2.5미터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설명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팔라는 착지할 곳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능력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외 없이 느껴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를 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배를 처음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날 오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환경의 두려움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주님이 보이는데, 세상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 염려들이 더 커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조차 으스스한 귀신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때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두 벌벌 떨면서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면 막상 무엇인 문제인지 무엇인 해결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을 구원할 바다를 꾸중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유령 즉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주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해결책이시고,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만큼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바다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히려 이 세상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랴!"

우리 주님이 먼저 발걸음하신 그 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넘쳐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물위를 걷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배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안전한 이 세상의 혼란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같이 금방 가라 앓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금방 다시 물속으로 가리않을지언정,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지언정 예수님은 우리가 악할 때 강함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배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배안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영어로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imitation이 아니라 participation 즉 동참입니다. 배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면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외치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동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직접 폭풍 가운데로 나아가, 이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70년에 미국 시카고 한 빈민가에 이발사와 목사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길거리에는 마약중독자, 부모 없이 자라는 굶주리는 아이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발사가 말합니다. "목사양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침 장발의 히피족 몇 명이 두 사람 앞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 때 갑자기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발사 양반, 당신이 훌륭한 이발사라면 왜 저 사람들

의 머리를 깎아주지 않습니까? 훌륭한 이발사 맞습니까?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이발소로 들어와 앉아서 나에게 머리를 맡겨주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깔끔하게 자를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머리를 나에게 맡겨주지 않으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못 자르는 겁니다.

목사님에 입에 작은 미소를 머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세상 누구 보다 잘 알고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위를 걷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14차 감리교 청년주일은 9월 22일 입니다.

생기 팡팡!!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133:1)



# 다녀왔습니다

## #1. 사랑나눔체험수련회 홍제교회 청년부

글: 청년부 회장 안 태용

홍제감리교회 청년부입니다. 봉사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수련회는 지금까지 진행한 자체적인 수련회보다 몇 가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젊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해외선교가 중요한 것만큼 지역선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는데, 날씨가 농가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묘목심기, 우사건축 등이 처음 예상한 봉사활동이었다가 막상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일손이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로 하셨고 그러다보니 농가 어른들끼리 사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양보하시기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고추수확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버섯 따기, 호박 따기에서 두 번 정도 일정이 변경된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하나씩 손으로 수확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고 매우 더웠습니다. 이번 농활로 인해서 고추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은 고추가 많이 열려도 수확할 일손이 없어서 어른 1인이 무리해서 수확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 농작물 수확기를 놓쳐 농작물이 그대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작물은 자연적으로 때가되면 시장에서 팔겠거니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도 이러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니 농촌의 일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선교에 관한 부분인데 크게 지역 노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만 지낸 청년들이고 선교라 하면 해외선교만 떠올리는 청년들이라 이번 감청 수련회 프로그램은 우리교회 청년들에게 신앙적인 관점을 넓히는 좋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어른들께는 이미 용 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여름성경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 같은 한국 땅에서 살지만 분명히 선교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다녀왔습니다

## #2. 감리교 평화캠프

“HUG”, 끌어안기

글: 하성웅 간사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초. 저는 항상 그 시간을 비워둡니다.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함은 아닙니다. 1년 중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감리교평화캠프’를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어느덧 5번째 참가하게 된 감리교평화캠프는 2005년부터 시작 된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캠프입니다. 평화캠프는 일반적인 교회 수련회와는 다르게 ‘인권, 통일, 평화’를 주제로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일구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캠프입니다. 일반적인 수련회와 아이들의 내면적인 신앙의 성찰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화캠프는 사회적인 신앙, 책임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HUG’라는 제목으로 통일을 마음에 품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화의 단절로 전쟁의 위기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올바른 가치를 품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평화요 사랑이며 화해입니다. 이번 감리교평화캠프는 그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이들이 성장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길러내려는 최소한의 몸짓이었습니다.

캠프는 여는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으로 그 첫째 날의 막이 열렸습니다. 평화캠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3일간 함께 할 여정을 확인한 후, 서로의 어색함을 허물기 위한 공동체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은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즐거운 놀이와 조 편성 게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즐거운 놀이로 프로그램을 끝내지는 않았고, 조별로 각조의 개성이 묻어나는 한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수련관 주변을 돌아다니며 가져온 돌, 꽃, 풀 등으로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은 3일 동안 캠프 예배당에 설치되어 제단을 만들면서 품었던 각자의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에 진행된 분반 모임은 평화캠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평화캠프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완성되는 질 높은 교재입니다. 우리들 주변의 어두운 현실을 돌아보고 성경에서 평화적인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캠프 교재에는 메인 주제인 '통일'에 맞게 폭력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담겨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HUG' 였습니다. 낯선 이들을 끌어안는 것(Hug), 거기서부터 평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의 다짐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 교재의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반 시간 자유롭게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사람들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 각자의 태도를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저녁 식사 후 말씀집회가 열렸습니다.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주셨습니다. 북한 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통일 운동에 앞장서시는 송목사님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인이 가져야할 평화와 사랑의 감수성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간식을 나누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모두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학생들은 예배당에 모여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오후에는 캠프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몸

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신세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는 ‘신자유주의 세계’라는 말의 약자인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순을 포스트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말하는 경쟁과 물질만능이 얼마나 위험하고, 반 기독교적인가를 게임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민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움과 함께 생각거리도 제공해주었던 멋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녁, 평화의 식탁을 나눈 후 이번 평화캠프의 하이라이트인 ‘헬로! 스트레인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안녕! 낯선 이들’ 정도로 번역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낯선 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낯선 이들이 있지만 이번 캠프에는 노숙인, 동성애자, 새터민 이렇게 3명을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들을 보았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이 역력한 모습이 비춰졌으나 이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오해들이 풀렸습니다.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짝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도미노 쌓기였습니다. 각 조들마다 평화와 통일의 상징들을 즐겁게, 유쾌하게 쌓아가며 둘째 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끝낼 줄 모르게 재미있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큰 프로그램 없이 ‘포옹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잔잔한 파송의 예배를 드리며 캠프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동그랗게 서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과 스텝들의 얼굴에는 헤어짐의 아쉬움이 보였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는 의지 또한 보였습니다. 사실 캠프의 참가한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화해하면 살기를, 낯선 이를 반기며 살기를 결단한다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거라 생각합니다. 한 알의 미약하지만 진실 된 씨앗을 심었던 3일간의 소중한 평화캠프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리교 청년회 청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스텝으로 함께 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조금은 색다른 청소년 캠프를 기획하는 교회들은 내년도에 함께 하면 기쁠 것 같습니다.





## 다녀왔습니다

#3. KCRP  
(Korea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in 일본 삿포르

글: 감훈지 간사

"원전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서로 모르던 사이였어도 그렇게 소통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로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KCRP 주제토론 시간 중 한 일본인의 말>

## “사람, 사람, 사람.”

토론 시간, 우리의 주제 재난과 복구, 마음의 치료, 가난, 자살 방지. 주제 토론시간에 일본인과 한국인 7대 종단, 나와 내가 아닌 이가 마주 앉아 서로 다른 언어로 이런 주제에 우리가 종교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서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름대로 일본에 가기 전에 주제를 위해 책도 읽고 생각도 해보고 갔지만 명확한 답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내 마음은 이런 주제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던 대답은‘.....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내가 따라가야 할, 닦아가야 할 길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써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큰일을 한 번에 해 낼 수는 없으니까요.’였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해줘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이들을 위해서도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도 여럿이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거든요.’ 등의 맥락의 이야기들로 이어졌다.



어떤 기술적인 말이나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서로의 진심이 깃든 간절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이해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제는 모두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나 언어도 달랐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함께해야 한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참 신기하고 탐탁치 않은 결론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 나에게 있어서는 말이다. 신기했던 것은 우리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는 곳도 환경도 생각도 심지어 주제마저 다른데도 결국 결론이 같다는 것이 역시 모든 건 이어져있는 건가? 싫어서 신기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답인가? 싫어서 탐탁치가 않았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불쌍하다는 것도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불행에 사람이 또 답이라는 것도 너무 탐탁치가 않았다. 고민하게 되는 결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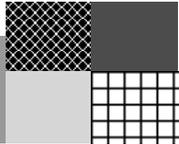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나는 KCRP 일정 가운데서 사람들로 인해 힘을 얻고 사람들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서로 살 던 곳도 환경도 모두 달랐지만 서로에게 생소한 지역에서 생소한 사람들과 함께 3박4일을 지내는 동안 서로에게 위로와 평화가 되어줬던 것 같다. 서로의 웃음이 되어주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 해주며 말이 안 통하기에 모든 걸치레를 내려두고 서로의 마음이 되어 줄 수 있던 시간이었다. 그 모든 시간이 평화였다고 생각한다. 탐탁치 않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마음이 되어주면서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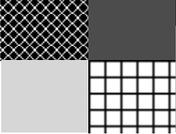
를 만들었다. 모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말이다.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이 평화였고 서로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 평화였고, 어떤 회의나 토론 보다는 그렇게 서로 직접 만나서 수다 떨고 그 가운데 나온 이야기들과 마음들이 평화였다. 평화를 이야기 하기위해 우리는 모였고 서로에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흠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참 평화를 누리고 왔다.

나는, 또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서로에게 만들어줬던 평화를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어렵고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는 뚜렷하지 않은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말이지만 말이다.



# '생기팍팍' 청년들의 2013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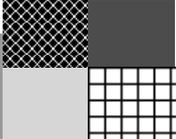
## 생일 축하드려요

### [9월]

윤창우9.9 황지현9.9 정수민9.17 김준규9.19

### [10월]

박수인10.3 홍길수10.10 이국노10.14 이은표10.21 황득한10.25  
한시내10.26 김은선10.28 진광수10.31



## 그루터기에 생명을 주신 분들

### 7 견우직녀달

강윤정 권혁률 구수현 김도연 김성수 김수일 김영락 김영란 김윤지  
김은선 김주영 김준홍 김지혜 김형일 남궁희수 남기평 민경수 박세현  
박수인 박승복 박정환 송병구 송성민 안복규 유영대 유재수 이국노  
이상호 이영주 이은영 이은표 이재훈 이종명 이진영 이현락 이효성  
장소망 정수민 정유은 정인혁 조선녀 조재국 조화순 진광수 차흥도  
최병천 최현길 하성웅 허지행 황정아 (계 639,046)

### 8 타오름달

강윤정 곽유진 권혁률 김도연 김성수 김수일 김영락 김영란 김윤지  
김은선 김주영 김준홍 김지혜 김형일 남궁희수 남기평 박달래 박세현  
박수인 박승복 송병구 송성민 안복규 유영대 유재수 윤창우 이국노  
이상호 이영주 이은영 이은표 이재훈 이종명 이진영 이현락 이효성  
장소망 정수민 정유은 정인혁 조선녀 조재국 조화순 진광수 차흥도  
최병천 최현길 하성웅 허지행 황정아 (계 569,473)



기독교  
대한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펴낸 날 2013년 7월 8일 펴낸이 정수민 엮은이 사무국 편집한 이 김성수  
펴낸 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연락처 02.399.2086/2170  
주 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누리집 myfk.or.kr 전자우편 myfk@hanmail.net